



... 고부가 가치 첨단도시 '눈에 확!'

장경훈 칠성종합시장발전위원장



"대구의 명물인 칠성시장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으려면 상인들의 의식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칠성종합시장발전위원회 장경훈 위원장(대구시의회 의원)은 칠성시장 등 재래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외면하고 대형마트로 물리는 것을 두고 시민의식만 탓해서는 안된다"며 "상인들 스스로 고객들을 대하는 서비스 의식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상인들이 욕심을 앞세워 상품진열대로 통로를 막을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를 터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상인연합회도 상인들을 상대로 체계적인 친절교육이 나서는 등 과거 악습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시장은 사람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이라고 했다.

그는 어릴적 손수레를 끌고 불건을 팔러 나온 어머니를 따라

“
상인들 불친절·의식개선 시급
상품권 할인제도 등 도입하고
시장의 멋 앞세우면 승산있어”

오면서 이곳과 인연을 맺었다.

지금은 칠성시장에서 가장 큰 플라시크 도매상으로 가게를 키웠고 정처에 뛰어들어 대구시의회 의원까지 역임하고 있지만 장 위원장에게 칠성시장은 여전히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지난 99년 IMF가 시작되자 칠성시장 상인들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발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그는 지금까지 줄곧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올 초 대구시가 예정적으로 추진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잘 활용하면 힘줄해지는 재래시장에게 '6기공 연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장 위원장은 요즘 상인들에게 "고객이 상품권을 주면 무조건 감사하게 받으라"고 목이 쉬도록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발매 초기 기업이나 기관·단체, 공무원들이 대량 구매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는 손조를 끌고 있지만 결국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시장을 찾는 주부이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은 "대구시 등이 앞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만 할인제도 등 시민들이 스스로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바뀌어가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를 이길 수 있는 길점은 바로 상인들의 푸근한 인심"이라는 장 위원장은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을 대하고 물건값을 깎아주고 말까지 쓴다면 대형마트는 발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형기자

“동천동은 콘텐츠 벤처기업 1번지로 3공단은 금형중심 복합단지로 조성”

이종화 대구북구청장



동 전문산업과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부품·소재·완성품 업체 등 콘텐츠 벤처기업들이 모여드는 강북지역 동천동 일대를 미래 성장 동력산업의 인큐베이터형 산업단지로 만들겠습니다"

이종화 북구청장은 동천동 일대를 모바일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해 지역 전략산업과 전문산업이 어우러진 '디지털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그동안 북구지역의 중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슬럼화되고 있는 3공단과 첨단공단에 대한 개발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3공단과 첨단공단을 도시기반시설과 주거여건을 두루 갖춘 산업도시로 재정비하는 한편 3공단에 첨단 아파트형공장 등을 건립, 지역경제 활력의 바탕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경쟁제조업체의 80%가 밀집돼 있는 칠산·노원동 일대의 한국광학협동조합이 들어서 있는 3공단지역이 안전산업 특화를 위한 안전특구로 지정돼 있는 만큼 중소기업지원사무소와 연계해 경영관리, 품질인증, 전시와 홍보, 마케팅, 바이어 상담, 신소재연구 및 공정기술과 디자인 개발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대구지역 금형관련 업체의 60%가 북구에 밀집해 있는 이점을 살리겠다"며 "차세대 금형기술혁신센터와 첨단·정밀연구소를 유치해 섬유, 안전

특히 경북대내에 건립 중인 삼성모바일 연구센터와 연계, 첨단공단과 종합유용 단지 배후지역, 첨단동 구 불류센터 부지에 성장주도형 대체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전자산업과 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유치하고 종합유용단지내에 들어설 특급호텔, EXCO와 연계, 전시·유통 및 문화산업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주변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칠곡1단지 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토지이용 및 도시의 기능에 맞도록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운동장, 제일모직, 무림제지 후처리 등을 지역 실정에 맞춰 문화·교육·업무·주거 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 청장은 "재래시장에 전자상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가격표시제 조기 정착, 상품권 도입 및 카드결제 활성화 유도 등으로 상권을 회복시키고 시장기능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과 대화를 함께 해온 팔달산시장, 칠성시장, 동대구시장 등에도 이케이드를 설치하고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등 기반시설과 시장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형기자 leejh@idaegu.com

김종식 안경산업지원센터사업단장



"안경산업지원센터가 우리나라 안경산업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김종식 사업단장은 우리 안경산업의 미래를 이루게 밝힌 뒤 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단장에게서 대구 안경산업의 미래를 들어왔다.

-대구 북구 안경산업의 현실은.

대구 북구 3공단 지역은 경쟁력 산업 중심으로 발전했다. 해방 이후 태동된 대구 안경산업은 60여년의 전통을 갖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안경 시장에서 우리 안경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력이나 디자인에서는 일본과 유럽에 뒤지고 중국의 저가 불량공예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역은 전국경쟁제조업체의 80%가 집중돼 있는 집산지다.

안경산업특구인 북구 칠산·노원동 일대에 지역업체의 80%

“
60년전통에도 어려움 여전
제품 부가가치 올려야 살아
다양한 마케팅지원 나설 것”

이상 이 결집돼 있으며 지역적 안경산업클러스터가 갖춰져 있다.

-안경산업이 섬유산업과 더불어 해양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앞으로 안경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은.

"98년 이후 매년 10% 이상 감소하던 안경수출이 2006년을 기점으로 3% 이하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상승, 환율 등 대외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낮은 감소세를 보임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의 안경산업이 저장을 지나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는 안경제품의 디자인,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유럽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안경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길 밖에 없다.

-안경산업지원센터의 역할과 안경산업 활성화 계획은.

"센터는 우리나라 안경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저가품 위주의 경쟁제품 고급화와 브랜드 이미지 상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위해 신소재 개발, 예로공정 기술혁신, 디자인 지원 등 사업과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는 안경산업의 초석인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 안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을 것이다.

또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해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안경 색채·디자인 사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외항해 대구국제관광전,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이성철기자 gusu@idaegu.com

무 배추등 포장출하 시장도매인제 도입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제2의 도약기 예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시진)이 시장도매인제와 채소류 포장유통전면시행으로 제 2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지난 1998년 청과류 도매시장에서 출발한 대구 북구 태전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난해 물동량은 4만3천톤, 지난 2006년 4만1천톤에 비해 5년 새 4만여톤 감소했다. 도매시장측은 "대형유통점이 늘어나면서 재래시장이 점차 위축돼 가고 있고 도매시장에서 채소 등을 다듬으며 생

기는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도매시장을 찾는 발길이 점차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올 1월부터 무, 배추 등 채소류에 대한 포장출하를 전면 시행, 유통 투명화와 채소를 다듬으며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따른 악취와 수질오염, 처리비용 등의 환경문제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유통 투명화를 위해 농수산물을 매수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공개하는 '시장도매인' 제를 도입, 운영할 예정이다.

"시장도매인"제는 '일반도매상'과 달리 도매시장이 요구하는 자격기준과 일정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을 거부·제한·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또 오는 5월 중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을 공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전태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수탁, 다듬음 유통을 위한 규격포장을 추진하고 시장경영의 투명화, 노후시설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